

제427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임시회)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5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4시56분 개의)

○위원장 어기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손을 들)

○위원장 어기구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양당 간사 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1시 30분에 전재수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문자 고지를 통해서 연락을 했고 오늘 이렇게 자리에 이르게 됐는데 오늘 1시 20분쯤 정희용 간사로부터 오늘 채택을 하기가 어렵다, 보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양당 원내대표 간에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전재수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이라든가 정책역량 검증에서 큰 쟁점이 없었고 원만하게 어제 합의해서 채택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시 반 약속을 번복하고 과기한 형국입니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추론해 볼 때 각 부처 장관들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수부장관을 다른 부처 장관 발목 잡기용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해수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의 어떤 본래의 취지와 뜻을 벗어나서 다른 의도와 협상을 통해서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인사청문을 대하는 그런 전략이나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고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위원님들과 정희용 간사님께서 원래 전재수 후보자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합의했던 내용대로 이 자리로 복귀해서 인사청문보고가 제대로 채택돼서 하루

빨리 해수부장관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통해서 어민들과 어촌과 또 우리 해운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복돋을 수 있도록 또 해수부 부산 이전을 속도감 있으면서도 신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회를 해 주시고 저희 민주당 위원님들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서 단독 처리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릴지 의견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정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문대림 위원 저 간단하게 한 말씀.

○위원장 어기구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사실 여야 간 협치의 기본은 합의 준수에 있다. 합의사항을 지키는 것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여야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라는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 이유 없는 협상 파기에 대해서 반복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러한 경고를 국민의힘을 향해서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차원에서도 앞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과정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일방적 파기는 그 당이 책임을 지는 이런 쪽으로 상임위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어기구 예.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어기구 임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어제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이라면 해수부장관후보자의 지명이나 절차에서 어떤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들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어떤 쟁점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는 것에 의심을 하는 국민들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오늘 합의 처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합의 처리되지 못하는, 그렇게 파기에 이르도록 만든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거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새 정부의 국정운영의 발목 잡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이거는 매우 분노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판단한 것이고 검증한 것이고 그것에 따른 오늘 합의 처리로 약속이 잡힌 건데 이것에 개입을 해서 마치 상임위의 판단을 무시하고 이번 해수부장관후보자를 장기판의 말 쓰듯이 다른 부처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불쾌하고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당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야당과 함께 국정운영을 해나가고 합의 처리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바여서 저희가 한 번 더 국민의힘에 촉구를 하고 정회를 한 상태에서 기다려 보고 협상을 더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간사님,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산회를 하는 게 좋습니까? 오늘

회의를 다시 하게 되면 정회가 좋고 내일 하게 되면 산회가 좋습니다.

○**송옥주 위원** 정회를 해 놓고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간이 되면 자동 산회가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어기구** 정회를 해 놓고?

○**윤준병 위원** 정회를……

○**임호선 위원** 정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택 위원** 제가 볼 때는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어기구**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원택 위원** 만약 오늘 안에 복귀를 안 하면 자동 산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동 산회…… 제가 방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회용 간사하고 통화를 다시 했습니다. 정회용 간사는 해수부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시간을 좀 정해 달라, 오늘 저녁까지 12시까지 기다리면 좋겠느냐 아니면 내일이냐, 내일모레냐, 내일모레 지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할 수가 없다, 3일 안에 채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원내대표 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확답을 줄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는 아무래도 정회용 간사 쪽에 그 다음에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정회를 요청하고 다시 양당 간에 협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위원장 어기구** 알겠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 실시한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0인)**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어기구 윤준병 이병진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첨가 위원(3인)**

서천호 전종덕 주철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황충연